

# 영미문화 지도의 필요성

최 용 재  
(동국대학교)

It is an axiom that bilingualism entails biculturalism, and teaching of culture has now become an imperative par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ccordingly, cultural awareness teaching must be brought to foreign language classrooms. If the subject matter is English, it is inevitable to teach culture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However, it is beyond the limits of an English language classroom to teach all of the cultures of the today's English-speaking World. To meet the limits of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it is recommendable to narrow down the scope of the cultures to the Anglo-American culture. Nevertheless, the TEFL in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Anglo-American cultural aspects. No wonder, most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this research misunderstood those cultural aspects that are seemingly well integrated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paper shows empirical evidences of Korean students' cultural misunderstanding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eaching of the Anglo-American culture in TEFL

## 1. 서론

영어를 가르치면서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 할 것이 영어권의 문화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이 영미문화의 지도를 너무나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미문화의 지도가 필수적임을 실례를 들어서 강조하려고 한다. 외국어를 배우면 그 외국어에 수반하는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물론 학습자가 처음으로 접하는 문물 제도 풍습 습관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어느 수업에서나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문화에도 목표어의 문화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면 상대문화의 특정한 내용이 이미 소

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여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영미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뿌리를 내린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서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목표언어가 대표하는 문화의 이해도를 헤아려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파악될 때 그에 대한 시정책을 제시하여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영어학습 붐이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른바 세계화 증후군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지구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추세에 놓여 있다. 모든 나라들이 기꺼이, 또는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서, “국경”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내어 놓고 보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졌다. 특히 경제면에서 이런 이상이 실현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물리적으로도 교통수단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지구는 점점 줄어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되었다. 세계의 어떤 오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고, 통신수단으로 그와 연결하여 접촉하는 일은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념과 추세 속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접촉은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을 할 것도 없이 언어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언어가 영어이므로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의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과열된 영어 학습열은 그 이유가 충분히 있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영어를 교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영어 자체의 어법과 같은 언어학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동원되는 것은 말뿐이 아니다. 낱말이나 문장표현을 넘어서서 문화적 이해가 작용하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실패의 원인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언어가 문화의 소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화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잘 정의된 낱말이나 표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누구나 자기의 언어가 대표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처방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더구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성공은 대화에 사용되는 언어의 명시적인 의미를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문화적 의미도 알아야 한다. 또한 문화의 이해는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규범과 의사소통 법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바로 이점에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인을 상대로 말을 할 때, 세계인들은 모두 자기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할 터이니 대화의 내용을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대개의 경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의사를 소통하려고 한다면, 영어권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여 그 범위 안에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학습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학습범위의 축소가 불가피한데, 모든 영어의 배경이 되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문화 즉 영미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만으로 볼 때, 영미문화의 이해가 없어도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같은 문화권의 화자들 사이에서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전세계를 상대로 하면, 아무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의 확률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간의 의사소통에서 있을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상호이해를 위한 어떤 준거로서 영미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 2. 이론적 배경

문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보면,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누구나 자기의 문화적 이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는 한 사람의 생존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에 드는 Alptekin (1993)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Culture, aside from its reference to the artefacts of a given community, involves socially acquired knowledge. This knowledge is organized in culture-specific ways which normally frame our perception of reality such that we largely define the world through the filter of our world view.

Sapir-Whorf의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문화적 이해가 서

로 동일할 경우에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Duquette (1985)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잘 정의된 어휘와 표현들은 이해와 상호작용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문화를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배워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자면,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사이일지라도 문화적 이해가 서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Rohner 1984). 만일 이들이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의사소통은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미내용이 거의 비슷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영어 교사가 영어로 쓴 교안에서 "unheard material"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료"를 영어로 직역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것은 "a new material"로 했더라면 족할 내용을 축어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예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노출시키기 마련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세련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예를 더 들어보면, 외형적으로 동일시되는 낱말이나 표현이 실제로는 다르게 정의되므로 말미암아 중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Kain (1986)이 든 다음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이다. 스위스 이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터키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출 경위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망명자는 자기 고향에 있는 "mountain (산)"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망쳤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심사관이 파악한 바로는 그 고장에는 "hill (언덕)"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당연히 심사관은 망명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명신청을 거절해버렸다. 여기서 일이 잘못된 원인은 "mountain"을 정의하는데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터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처럼 조그마한 언덕도 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망명신청자는 "mountain"으로 번역했으나, 스위스에서는 "mountain"과 "hill"은 엄격히 구별되어 "mountain"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고산지역으로 수림 자생지보다 더 높은 지점을 지칭하는 낱말이었다. 이 예가 시사하는 바는 문화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장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하여 각기 다른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것이 상례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선입견, 논리적 결론 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

에 말은 같이 하면서도 거기서 얻어내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를 “A drowned man catch a straw.”로 번역하는 것을 보는데, 이를 제대로 번역하면 “A drowning man will clutch at straws.”가 될 것이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drown”이라는 낱말의 이해 때문이다. 이 낱말은 “물에 빠져 숨이 막혀 죽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으로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은 “이미 물에 빠져 있으니” a drowned man이어야 옳다. 그러나 물에 빠졌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또한 물밑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다. 숨이 막혀야 비로소 죽는다. 그러니 우리 식의 표현은 “A man in the water being in danger of losing his life will clutch at straws.”가 될 것이다.

위에서 든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국제간의 의사소통에서 사용언어가 영어일지라도 영미문화가 아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서도 문화적 배경은 영미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에는 영미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영미문화의 범위 안에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은 보편적이어서, 자연히 이른바 영미문화권의 영어 토박이들은 대화상대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을 자를 자주 본다. 그러나 대화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모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대화상대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도 영어를 이해하는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낱말이나 문장표현을 넘어서서 문화적 이해가 작용하는 것을 직시해야 하겠다. 이런 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여 “문화를 알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간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어학능력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몰이해일 수도 있다. 바로 이점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 3. 문화의 이해와 오해 사이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제한된 시간에 영어권 또는 영미국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의사소통에서 참조문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개략적인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가 막연한 것이 사실이므로, 어떤 선별의 기준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에서 장

애요소가 되는 부분을 의도적이고 선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화상대의 문화가 자기의 문화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대화상대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 많다. 셋째, 대화상대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용하여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말해보면, (1)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여, (2) 대화상대방의 문화를 충분히 익히고 이해하여, (3)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통하여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화상대의 문화가 자기의 문화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이 경우는 대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대화상대방의 문화와 자기의 문화가 의견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때이다. 다음으로는 대화상대방의 문화가 이미 자기의 문화에 유입되어 자기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동일한 것인지를 일단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문화의 일면이 분명히 상대문화에서 유입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른 바 진품임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유입 또는 차용의 단계에서 의미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적용의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며, 의외로 옳게 사용을 하면서도 그 유래를 잘못 알아서 엉뚱한 연상을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논문에서 들고자 하는 예는 대학교 일 학년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설문의 내용을 Tad Tuleja의 *Curious Customs* (1987)에서 미국의 풍습 또는 습관을 55개를 골랐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미 우리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일람표를 만들어 그 내용에 대하여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써오도록 일주일간의 여유를 주어 숙제로 해오게 했다. 일단 숙제를 거두어들이고 다음에, Tuleja의 설명을 소개하고 각자의 반응을 다시 써오게 했다. 응답자들은 자기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나열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처음 숙제의 결과 가운데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문제로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잘못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잘못된 연상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언젠가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는 것들도 포함시켰다.

a. **비교적 올바른 이해**

대다수 응답자의 경우에 주어진 문화내용을 비교적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비교적”이란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응답자 가운데 몇몇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 Q: 헤어질 때 말하는 Goodbye의 뜻은? (Q = Question, A = Answer))

A1: God be with ye.의 준 말

A2: (조심해) 잘 가라

A3: 헤어져 있는 동안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A4: 다시 만나자

A5: 잘 자거라

Goodbye는 adios나 adieu와 같이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는 내용”으로 A1의 답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입장에서 볼 때, Goodbye는 헤어질 때의 인사이므로 그런 말을 할 경우에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Goodbye라고 말하면서도 응답자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의미로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표현을 사용할 때가 항상 헤어질 때임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사용상의 실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이해와 적용을 보여 주고 있다.

(2) Q: 악수를 하는 뜻은?

A1: (손에)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

A2: 적의가 없다.

A3: 헤칠 의도가 없다.

A4: 호의적 감정의 표시

A5: 반가움에 체온을 나눔

A6: 인사의 한 가지

A7: 나를 믿으시오

흔히 인사의 하나로 악수를 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손에 무기를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행위에서 출발했다고 추측되는 악수는 그 유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계약의 체결 등에서 계약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응답들

은 적대감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A1-A3)에서 출발하여 인사의 하나(A4-A6)가 되고 신뢰를 청하는 말(A7) 등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 우리 문화로 이해하기**

외국의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우리 문화에도 공존할 때는 그 의미를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 마련이다.

(3) Q: 엄지를 치켜드는 뜻은?

- A1: 최고다 또는 일등이다
- A2: 매우 좋다
- A3: 잘 했다
- A4: 이겼다
- A5: 돈이 없다

(4) Q: 눈썹을 치켜드는 이유는?

- A1: 화가 날 때
- A2: 위협할 때
- A3: 놀랄 때
- A4: 의심스럽거나 수상쩍을 때

(3)의 경우는 “최고다, 좋다, 잘 했다”에서 유추하여 “이겼다”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의미는 조금 의외의 용법이다. 그러나 “일등”을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엄지를 치켜드는 관습이니, 위의 답들은 순수한 우리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의 경우에도 미국식이라면 A4가 정답일 것이니 A1에서 A3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식의 표현일 것이다.

**c. 미루어 생각하기**

미루어 생각하기는 주어진 질문의 내용이나 낱말에서 실마리를 잡아서 논리적인 유추를 통하여 답을 유도한 것이다.

(5) Q: Dutch treat의 유래는?

- A1: 화란인의 개인주의적 습관에서 출발
- A2: 돈이 없으므로 자기 것만 부담
- A3: 원래는 독일인의 인색함에서 출발

Tuleja에 의하면 Dutch treat는 원래 영국인들의 습관을 화란인에게 덮어씌운 것인데도, 낱말의 표현대로 유추하는 경우이다. 사실



“돈이 없으므로 각자 부담한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고 또 그런 실천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화란을 나타내는 Dutch가 Deutschland의 Deutch와 발음이 비슷하여 독일로 오해한 예이다 (A3).

(6) Q: 여자가 하이힐을 신는 이유는?

- A1: 길 위의 오물이 치마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하여
- A2: 키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하여 (남자만큼)
- A3: 힘을 높이려고
- A4: 다리를 예쁘게 강조하기 위하여

(7) Q: 껌을 씹는 이유는?

- A1: 집중력을 기르기 위하여
- A2: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 A3: 치아건강을 위해 양치질 대신에
- A4: 음식찌꺼기 및 냄새 제거
- A5: 빈민들이 나무를 씹어먹은 데서 유래

(6)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A1이었던 바, 다분히 실용적 추리를 한 것 같다. (7)에서도 “집중력을 기르거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라는 추론을 보는데, 이는 TV에서 야구 선수들이 껌을 씹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상하여 만들어낸 답으로 생각된다. “양치질이나 치아의 건강”은 같은 유형의 추론이다. 그러나 A5는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연상케 한다.

#### d. 설화 창작하기

많은 응답 가운데 특히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엉뚱한 설화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8) Q: “lady first”의 참뜻은?

- A1: 전쟁 중에 여성을 이용하여 지뢰를 탐사케 한 데서 유래
- A2: 마차에서 내릴 때 저격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여자를 앞세움

(9) Q: Valentine's Day의 유래는?

- A1: Valentine이란 소녀가 사랑을 고백한 것을 기념
- A2: 남녀의 교제가 금지된 시대에 남녀를 맺어주고 순교한 Valentine 신부를 기념하여

(10) Q: four-leaf clover가 행운을 의미하는 이유는?

- A1: 나팔레옹이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하고 꺾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총알이 지나가 목숨을 구했으므로

위에 든 예는 모두가 원래의 뜻이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설화를 창작한 것이다. (8)의 경우는 lady first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여자를 앞세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 (9)의 경우는 결혼을 주제한 신부가 그 이유로 순교한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꾸민 것이다. (10)는 누군가 창작해낸 이야기를 읽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다.

#### e. 역지로 가져다 붙이기

역지로 가져다 붙이기는 주어진 질문의 내용보다는 응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역지로 가져다 붙여서 설명을 하는 예이다.

(11) Q: God father (대부)의 뜻은?

A1: 조직의 우두머리를 하늘처럼 여김

A2: 마피아의 두목

A3: 양아버지

(12) Q: 생일에 촛불을 붙여서 끄는 풍습은?

A1: 생명을 나타내는 초를 켜고 끄는 것은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막음

(13) Q: 사람이 죽으면 검은 옷을 입는 이유는?

A1: 수수하기 때문에

A2: 사후의 암흑을 표시

(14) Q: eye shadow를 바르는 이유는?

A1: 햇볕에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A2: 눈가에서 벌레를 쫓으려고

(11)의 경우는 동명의 마피아 영화 *The GodFather*를 보고 그런 개념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12)는 생명의 불꽃을 켜고 나서 생명인 초가 더 짧아 없어지지 않도록 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3)에서는 주검 앞에서 수수한 차림이 합당하다던가 죽음이 바로 암흑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해를 담고 있다. (14)은 야구 선수들이 햇볕에 눈부심을 막기 위하여 칠하는 검은 색을 연상하여 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벌레를 쫓으려는 시도라는 것은 다소 의외의 답이다.

#### 4. 문제의 분석

한 공동체의 문화가 다른 공동체에 전하여지는 경우에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리라고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저하여지는 문화는 전해 받는 공동체에 의하여 수정되고 변형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물론 전해 받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경우도 많지만, 때때로 엉뚱한 의미로 쓰일 경우가 있다. 전해 받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의 사이는 종이장 하나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조그마한 오해가 뒤에 가서는 큰 오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비록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을 바로 쓰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 못된 이해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당장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앞의 단락들에서 든 예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goodbye의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의 예를 상정하여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항상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만나시다”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악수를 하는 경우도 우리 나라에서는 우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전부일 수 있으나, 외국의 경우 “It's a deal.”이라고 구두로 계약을 한 다음에 악수를 하는데, 이 때의 악수는 seal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seal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런 의미의 사용도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과 구두 상담 끝에 상대방이 “Deal”이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손을 내밀었다가 뒤에 가서 내가 언제 동의했느냐고 따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둘째, 우리 식의 표현이 외국에도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식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우리는 돈을 의미하지만 영미문화권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엄지를 치켜들면 우리는 일등을 의미하지만, 미국식이라면 hitchhike를 위해서 손을 든 것으로 이해할 것이니 도무지 어리둥절 할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이 눈썹을 치켜들었을 때, 그가 화가 났거나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식의 오류는 누구나 범하기 쉬운데,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일부러 묻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몸짓이나 표정 등에 대하여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므로 오해를 했을 경우에 그냥 지나치게 되어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미루어 생각하기는 억지로 가져다가 붙이기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터무니없는 상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더욱이 앞에서 든 바와 같이 Dutch를 독일로 생각하는 식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하이힐을 신어서 길바닥의 오물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를 생각해 내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가 실린 표현은 고사성어(古事成語)나 관용구와 같아서 그 말을 이루는 개별 낱말에 의하여 의미를 유추해 내기가 어렵거나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루어 생각해내기가 제대로 적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우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설화를 창작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대다수의 응답자가 앞에 든 예들의 유래를 참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을 보면, 아마도 어디에선가 읽었거나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설화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원래의 용법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예로 든 것들 가운데, lady first는 여자를 어린이와 같이 취급하여 항상 돕지만 정작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 여자에게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는다면가 임금의 차별을 두는 것이 증거이다. four-leaf clover도 나폴레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히려 그 모양이 십자가와 같아서 불운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터무니 없는 꾸며대기가 비록 용례에서는 크게 잘못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이해에서는 다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다섯째, 역지로 가져다 불이기의 예들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서 유추해낸 내용으로 답을 삼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추의 과정이 작용하는데, 그 유추의 과정에서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어서 올바른 답을 하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생일에 초를 켜고 끄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촛불을 켜고 생명의 단축을 막기 위하여 끈다”고 유추를 했는데, 논리의 비약이 있다. 만일 촛불이 생명이라면 꺼짐은 죽음을 뜻할 것인데도 유추하는 과정에서 초 자체가 생명이 되어 닳아지면 생명이 닳는 것이 되었다.

## 5. 결 론

이 논문에서 든 몇 개의 예들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의 문화가 여러 가지 경로나 이유를 통하여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혀 생소한 문화요소라면 의심을 가지고 물어서 배울 수가 있으나 이미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나 이미 우리 문화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영어권의 사람들과 차이가 날 때 당황하게 된다.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들이 하나의 사물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그들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었음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논문에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도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제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차이를 관용할 수도 있겠으나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가는 오늘날 그럴 여유가 없다. 또한 교육을 하는 입장은 항상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어를 가르칠 때 그와 관련된 문화도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 한다.

문화의 지도가 필수적이라면 무슨 문화를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누구나 당연히 영미국의 문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가 세계어로 바뀌어 가고 있는 지금, 이른바 영어권만 해도 영국 미국 아이레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등등 여러 나라가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들 영어권의 사람들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영미국의 문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영미국이나 영어권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이므로, 의사소통의 현장은 영미문화의 배경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비영미문화권에서 생겨난 영어들이 있으므로 그런 영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의 차이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너무나 광범하여 우리가 그 모든 문화를 다 가르치고 배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최소한의 문화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영미국의 문화에 국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문가 집단 특히 이공계통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의사소통을 제외하고 난 일상생활에서 영미국인과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영미문화가 개입될 것이다. 사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가벼운 착각으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가치체계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다른 문화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에서도 때때로 의미의 전달이 원만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문화간의 의사소통은 상당한 어려움을 처음부터 안고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 점에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함께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여기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최소한의 영미문화교육이 필수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Alptekin, C. (1993) "Target-Language Culture in EFL Materials," *ELT Journal* 47, 136-143.

- Duquette, G. (1985) "Do Cultural Perceptions Facilitate Second-Language Acquisition?"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1, 524-533.
- Kalin, W. (1986) "Troubled Communication: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s in the Asylum-Hear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 5245-533.
- Rohner, R. P. (1984) "Toward a Conception of Culture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111-138.
- Tuleja, T. (1987) *Curious Customs: The Stories Behind 296 Popular American Rituals*, Harmony Books, New York.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용재